

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

(문의) 02-784-9862

신안저축은행 오너 일가 검찰 무혐의 처분 전후, 尹 처가 6차례 걸쳐 136억 대출.. ‘부당거래’ 여부 밝혀야

- 현안대응 TF, 김건희 서울대 EMBA 동기 신안저축은행 박 모 전 대표, 금감원 고발에도 검찰 무혐의 처분, 이후 신안저축은행 최 씨 관련 사업 6차례 걸쳐 136억 상당 대출
- 김병기 단장, “처가 사업에 특정 저축은행이 136억 규모 대출 제공한 것은 신안저축은행 박 전 대표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한 댓가로 제공된 ‘부당거래’ 여부 밝혀야”

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(상임단장 김병기 의원)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의 판결문, 동업자 안모 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문 및 최 씨의 가족회사 ESI&D에 대한 공시자료와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한 결과, 신안저축은행이 김건희의 가족이 추진한 사업에 시행한 대출액이 136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을 제기했다.

尹 결혼 후 김건희 일가 사업 관련 신안저축은행 대출 내역

| 대출일 | 대출 금액 | 대출 유형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'13년 3월 | 16억 6,582만원 | 최은순 당시 보유 암사동 건물 담보 대출 | 최은순 요양급여 불법수급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대출 (최은순 의료법 위반 1심, 2심 판결문) |
| '13년 4월 | 20억원 *추정 근저당 채권최고액 26억원의 100/130 | 최은순 당시 보유 암사동 건물 담보 대출 | 최은순 일당 도촌동 16만 평 토지 차명취득 관련 대출 (최은순 1심 유죄·동업자 안 모씨 확정 판결문) |
| '13년 10월 | 48억원 | 마이너스 통장 | 최은순 일당 도촌동 16만 평 토지 차명취득 관련 대출 (최은순 1심 유죄·동업자 안 모씨 확정 판결문) |
| '14년 10월 | 10억원 *추정 근저당 채권최고액 13억원의 100/130 | 최은순 당시 보유 암사동 건물 담보 대출 | 최은순 일당 도촌동 16만 평 토지 차명취득 관련 대출 (최은순 1심 유죄·동업자 안 모씨 확정 판결문) |
| '15년 7월 | 38억 5,000만원 | 일반자금 대출 | 최은순 가족회사(ESI&D 감사보고서) |
| '15년 | 2억 9,999만원 | 마이너스 통장 | 최은순 가족회사(ESI&D 감사보고서) |
| 총 6차례 136억 1,581만원 (추정치 포함) | | | |

최 씨에 대한 요양병원 불법 수급에 따른 의료법 위반사건의 1심,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신안저축은행은 2013년 3월 승은의료재단에 대출금 16억 6,582만 5천 원을 송금

한다. 최 씨가 소유했던 암사동 소재 건물의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같은 달 신한저축은행이 채권최고액 22억 1천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대출금 담보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.

|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건물 등기부등본(2005.8.~2015.6. 최은순 보유)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근저당권설정 | 2013년3월15일 세40620호 | 2013년3월14일 설정계약 | 채권최고액 금2,210,000,000원 채무자 최은순·최은영·최은진 최은진·최은영·최은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신안상호저축은행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치동 공동담보 토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|
| 6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| 2013년3월18일 제11002호 | 2013년3월18일 해지 | |
| 근저당권설정 | 2013년4월15일 세46010호 | 2013년4월15일 설정계약 | 채권최고액 금2,600,000,000원 채무자 인터베일리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신안상호저축은행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치동 공동담보 토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500 |
| 근저당권설정 | 2014년10월17일 세43782호 | 2014년10월17일 설정계약 | 채권최고액 금1,300,000,000원 채무자 인터베일리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신안상호저축은행 |

신안저축은행은 같은 건물에 대해 2013년 4월과 2014년 10월, 채무자 인터베일리 주식회사·채권최고액 각 26억 원, 13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다. 위 근저당의 실채무액은 대출한도인 20억 원과 10억 원, 총 3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.

최은순 씨와 동업자 안모 씨에 대한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인터베일리는 최 씨의 도촌동 16만 평 토지 차명 취득 과정에서 ‘인터베일리의 신안저축은행 계좌에 38억 원 이상의 예금이 있다’는 취지의 허위 잔고증명서 발급에 이용된 회사다.

또한 최 씨의 사문서위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문과 동업자 안 씨에 대해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 따르면, 최 씨는 도촌동 16만 평 토지를 차명 취득하며 신안저축은행의 한도 48억 원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매매대금으로 활용했다.

| 윤석열 장모 동업자 안씨 대법원 확정 2심 판결문 중 |
|--|
| <p>④ 3차 매매계약 당시 도촌동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약 40억 200만 원이었는데, 당시 피고인과 최00은 김00을 통하여 신안저축은행에 48억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약 36억 원을 인출하여 잔금 납입 용도로 사용하였다.</p> |

최은순 씨가 대표이사, 김건희 씨의 형제·자매가 임원으로 있는 가족회사 ESI&D 역시 신한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. ESI&D의 2016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, 신한저축은행은 2015년에 일반대출 38억 5천만 원, 마이너스 통장 2억 9,999만 원 등 총 41억 5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시행했다. ESI&D는 김건희 씨 또한 이사로 재직할 바 있는 회사다.

| ESI&D 2016년도 감사보고서 중 (금융감독원 전자공시)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|---------------|
| 9. 장·단기차입금 | | | | |
|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장·단기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. | | | | |
| (1) 단기차입금 | | | | |
| (단위 : 원) | | | | |
| 차입금종류 | 차입처 | 이자율 | 당기 | 전기 |
| 일반자금대출 | 신안저축은행 | 7.00% | - | 3,850,000,000 |
| 종합통장대출 | 신안저축은행 | 7.00% | - | 299,993,172 |
| 계 | | | - | 4,149,993,172 |

신안저축은행은 2012년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,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3월 대출 총 책임자인 박상훈 전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.

이에 대해 김병기 상임 단장은 “한 일가의 사업에 대해 특정 저축은행이 136억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한 것 자체가 지극히 이례적으로, 당시 대표가 김건희와 서울대 EMBA 동기라는 사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” 고 지적했다.

“서울중앙지검이 신한저축은행을 수사할 때 윤석열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검사였고, 서울중앙지검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이례적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, 최 씨 일가에 대한 이례적 거액 대출이 시작되었다.”

“검찰의 불기소와 함께 시작된 거액의 대출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의심이 합리적이다. 중앙지검 요직에 있던 尹 후보 패밀리와 신한저축 오너 일가 사이에 수사와 대출을 주고 받은 ‘부당거래’ 가 있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” 고 밝혔다. //끝